



현대 조각을 공예로 읽어볼까?

아시아문화전당,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작인:현대조각과 공예 사이' 전
양혜규 등 14명 국내·외 작가 작품 전시

서도호 작 '서울 집/서울 집/가나자와 집/베이징 집'

전시장 천장에 매달린 건 천으로 만든, 14m에 이르는 집이다. 하늘하늘한 실크 천에 일일이 손바느질을 한 작품은 작가가 어릴 적 살던 한옥집을 구현한 작품이다. 서도호 작가는 '집'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이주와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해왔고, '패브릭 건축'은 그의 시그니처 중 하나다. 개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가죽과 나무, 강철로 디스토피아적 느낌의 상상의 건축물을 구현한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작가 류웨이의 작품은 기묘한 소재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두 작품 모두 작가의 공력이 느껴지는, 노동 집약적인 작품들이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전시를 통해 '회화 본연의 맛'을 보여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성원 전시감독이 이번에는 '인간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조각전'을 기획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 ACI) 주최로 5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문화전당 창조원에서 열리는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는 "현대 조각을 어떻게 읽어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전시다. 인물, 풍경,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조각'의 의미를 풀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선택한 것은 '손'으로 작업하는 공예다. 이번 전시는 '공예로 읽어보는 현대조각'으로 공예가 작품 속에 어떤 관계로 녹아 있는 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인 셈이다.

전시는 최근 20여 년 동안의 현대조각의 흐름 속에서 수공예 기법과 공예적 재료를 사용하는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는 기획으로 공예적 요소들을 글로벌리즘, 지역 특색, 사회정치적 이슈, 역사 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으로 삼는 작가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을 탐구하고, 장인적 완성도, 전통적 특성과 앞선 기술을 통해 현재 조각 분야에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는 작가군이다.

14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화려한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하고 독일 등 전세계 미술계에서 호명받는 양혜규(독일 슈테델슐레 교수) 작가,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전시중인 강서경 작가 등 국내 작가들과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2005)을 수상하고 2021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예정된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 독일의 토마스 슈테, 여성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으로 1980년대부터 현대미술의 선구적 역할을 한 로스마리 트로켈, 광주비엔날레에 '버릴 것 없는'으로 참여했던 송동 작가의 부인으로 역시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인순전 등이다.

공식 개막을 앞두고 4일 미리 둘러본 전시는 조각과 공예의 절묘한 만남을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보여준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전통 공예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작품들은 궁금증을 자아내며 전시장 벽

면을 적절하게 활용해 판타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돋보이게 배치한 적절한 공간 구성도 눈에 띄었다. 또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을 바로 볼 수 있는 등 관람객도 배려했다.

인순전 작가의 '무기'는 차갑고 폭력적인 '칼'이라는 요소와 따뜻하고 정서적인 '현옷'을 결합시킨 작품이다. 중국의 고대 무기와 '언론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송출탑 모형의 조형물에 작가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은, 개인의 기억과 역사가 담긴 현 옷을 씌워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양혜규 작가의 전시 공간은 2011년부터 작업해온 '벽지' 시리즈와 민속과 수공예 개념을 탐구한 주술적 느낌의 '중간 유형' 시리즈로 꾸며졌다. 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벽지 작업 '순간 이동의 장'은 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민속적·주술적 작업에서 뽑아낸 이미지들을 형상화했으며 '중간 유형' 연작은 신화 속 캐릭터나 한국 토속 문화의 제의적 이미지를 짙은 색채로 표현하여 다채롭게 풀어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가한 양혜규 작가는 "벽지 작업은 전통적 형식에서 수공예는 아니지만 모티브를 재검토하고 축적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 역시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라며 "신비롭고, 이상하고, 알 수 없는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내 작업은 카프카의 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재미 중 하나는 '감춰진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인순전의 작품 소재인 현옷 아래에는 냄비, 바구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숨어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진행하는 김범 작가의 '종이로 포장한 것' 시리즈 역시 양념통, 세제 용기 등 생활용품을 물에 적신 종이로 감싸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만들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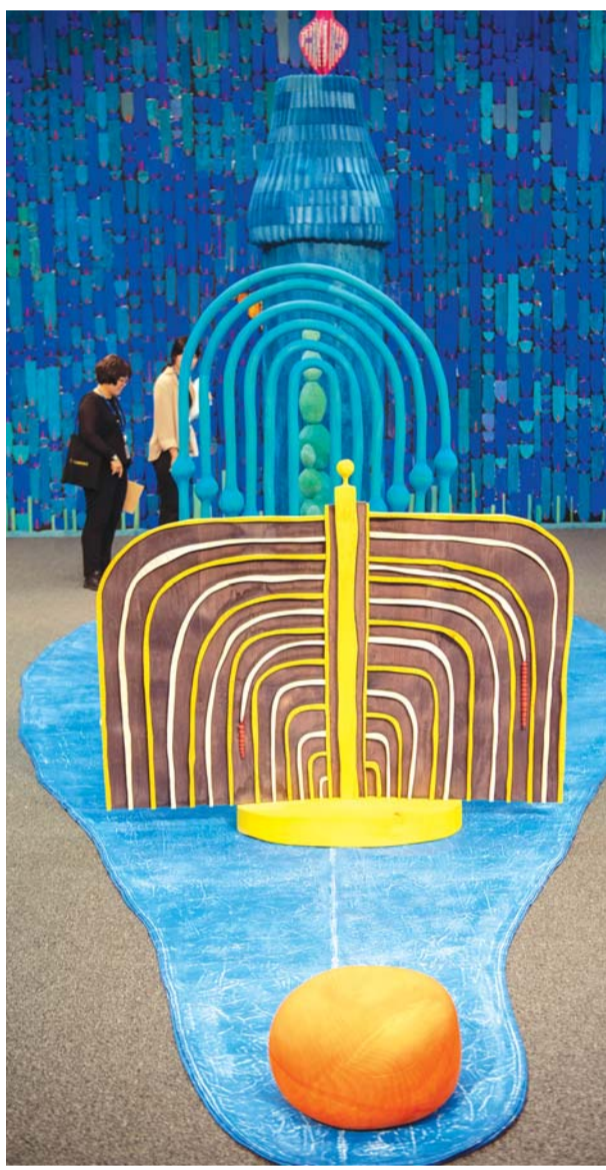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나무 조각 작업을 진행하는 베트남 작가 부이콩 간은 전통 나무를 일일이 손으로 깎은 책상과 의자, 문 등에 총 등 다양한 사물을 조각해 남·북 베트남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크메르 루즈의 집권으로 난민이 돼 미국에 정착한 후 다시 조국 캄보디아로 돌아와 작업 중인 슬림 피치 작가는 대나무를 구부리고 묶는 수작업으로 제작한 '고난'을 전시중이다.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그는 자신을 '자연의 학생'이라고 표현했다.

그밖에 화려한 색감과 기하학적인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 '안과 밖 그리고 안과 밖 다시'는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온 미국의 매슈 로네이가 내세와 현세, 그리고 중간계를 풀었던 작품이다. 또 화려한 색채로 무장한 토마스 슈테의 도자기 작업 '정원 요정들'과 클라우디아 비서의 타일과 목재 작업도 인상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부이콩간 작 '북부 유산'



매슈 로네이 작 '안과 밖 그리고 안과 밖 다시'



클래식, 산책하듯 가볍게 즐겨요

광주시향 'GSO 프롬스', 8일 광주문예회관



지휘자 이흥재



플루티스트 정은지



클라리니스트 최은규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고요한 공연장 객석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즐기는 클래식 축제가 찾아온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8일 오후 3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잔디마당에서 음악회 '2019 GSO PROMS (GSO 프롬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GSO 프롬스'는 회관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따라 '음악 속을 산책하는' 축제형 야외음악회로, '프롬스'는 '산책하다'라는 뜻의 단어 프롬나드(promnade)와 콘서트(concerts)의 합성어다.

이날 행사는 메인 콘서트, 클래식 버스킹, 음악 놀이터 3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메인 콘서트는 건물 외벽에 박상화 미디어아티스트의 미디어 파사드 '판타지아-Mudeung'을 상영하며 막을 올린다. 주제의 '경이병 서곡',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앤더슨의 '춤추는 고양이',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 등을 무대에 올린다. 상임지휘자 김홍재가 지휘봉을 잡고, 플루트 상임수석 정은지가 협연자로,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해설자로 참여한다.

야외음악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클래식 버스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연주자들이 각각 40여분에 걸쳐 동요, 재즈,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김은혜(광주시립합창단)가 뮤직도슨트로 참가하는 '클래식 동요나라', 추선호 등 6명의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Brass in Gwangju', 피아니스트 정운정과 더불어베이스 남한나(광주시향 수석) 듀오가 펼치는 무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는 관객참여 프로그램 '음악놀이터'가 진행된다.

'음악을'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식 라이브연주를 배경으로 예술서적을 읽을 수 있는 '음악서점', 모차르트와 베토벤 곡을 들으며 나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음악드로잉', 고민편지를 적어 보내면 광주시향 단원들이 위로의 메시지와 추천곡을 전해주는 '음악치방전' 등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